



5면

송천동 에코DK물 사태 현장 간담회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음 9월 15일) 제38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재생·정밀의료·융합이 여는 미래

전북자치도 '2025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포럼'... 첨단바이오산업 발전 비전·전략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가 3일 익산 웨스턴 라이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자치도 및 익산 시 관계자를 비롯해 도의원, 도내 대학 총장·교수, 바이오기업 대표 및 전문가,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재생과 정밀의료, 그리고 융합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전북의 바이오AI·재생치료·탄소의료기기 등 바이오 특화 전략과 육성 의지를 알리고, 첨단바이오산업 발전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정 단장(前 오송재단 이사장)이 '바이오 융합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이 참여한 '스크린 버튼 퍼포먼스'를 통해 전북 바이오산업의 미래 비전과 협력 의지를 선포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차바이오그룹 양은영 부사장의 'CGB-CIC 오픈이노베이션센터-아시아 바이오 혁신의 심장, 세계를 연결하다' △고려대학교 오운배 교수의 '탄소의료기기 국제협력 사례' △인포보스(주) 박종선 대표



3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포럼'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AI 기반 후보물질 분석' 등의 발표가 실시됐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전북도청, 차바이오그룹, 고려대학교, 인포보스(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 재생의료·정밀의료·AI 융합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학·연·관 연계 바이오 얼라이언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탄소·재생의료 융합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국가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포럼은 전북이 보유한 바이오산업 잠재력을 결집

해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라며 "재생의료, 정밀의료, AI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尹정부 농정 실패… 대책 절실”

민주 이원택 의원, 농지 축소·가루쌀 정책 등 문제 지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국정감사에서 농지 축소, 가루쌀 정책 실패, 농민 부채 악순환 등 농업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량안보 위협, 농정 정책의 비효율성, 그리고 청년 농민 지원의 부재 등 농업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 정책인 가루쌀(분찰미) 정책은 추진 2년 만에 2025년 생산 목표를 약 40% 대폭 하향 조정하며 사실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비축기지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국 최대 곡창지대이자 논콩 등 대체작물 재배가 활발한 김제시를 최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그는 농기계 검정제도의 부실로 농민 피해가 심각함을 드러낸 가운데 로보드림(주)의 RT-135 트랙터 모델이 종합검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시 굴삭장치가 용접 부착된 불법 개조 형태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개조된 기계가 6년간 유통됐음에도 적발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신기술 농업기계'로 홍보까지 지원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직격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의 검증을 신뢰하고 구매한 농민들이 잦은 고장과 구조적 결함으로 피해를 겪었으나, 민사 소송에서는 사용자 과실로 판단되어 거액의 손실을 변상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정기관이 법령상 금지된 구조 개조를 절러내지 못한 것은 '행정 실패'라며 검정 무효 처분을 통한 피해 농민 구제와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권희성 기자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중앙축산 농업회사법인, 익산 도축장 시설 인수… 전면 개보수

전북 지역 유일의 축산물도매시장인 익산 축산물도매시장이 5년 만에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도내 유일의 도매시장으로 운영되던 익산 도축장은 2020년 시설 폐쇄와 함께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전북 축산 농가들은 타 지역 도매시장까지 소를 출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중앙축산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시설을 인수한 뒤 최신 위생 기준에 맞춰 전면 개보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3일 도축장을 새롭게 개장했다. 현재는 11월 중 예정된 축산물도매시장 경매 개시를 앞두고 시설 및 운영체계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재개장으로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출하 기반이 마련되고, 도내 축산물 유통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면

서 물류비 절감과 함께 유통 효율성도

개선했을 전망이다. 특히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 제한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방역 대응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도매시장은 도축된 한우를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곳으로, 농가는 유리한 가격에 판매하고 유통업체는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농가 소득 증대와 유통 효율 제고에 기여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수도권 4곳, 중부권 3곳, 영남권 5곳, 호남권 2곳 등 총 14개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도매시장 개장은 도내 한우 농가에게 합리적인 출하 여건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한·중 새만금 RE100 산업협력 강화’ APEC서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개최된 APEC 한·중 정상 및 정상회의에서, '새만금 내 한중 공동 RE100 산업 조성 협력' 제안이 민생분야 실질협력 성과사업으로 논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새만금 RE100 협력사업은 김관영 도지사가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해 한·중 정상회담의 민생분야 협력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북도가 주도한 지역발전 전략이 국가 간 협력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중은 한국의 새만금과 중국의 옌타이 등 기존 협력단지 대상 투자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새만금에도 투자 진출에 관심

김관영 도지사 제안... 한·중 정상회담 민생분야 협력사업 반영
산업부·부처별 협력 통해 새만금 RE100 산업 추진기반 구축

있는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투자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중 공동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2015년 체결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MOU를 기반으로, 새만금 내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RE100 산업단지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개발 범위와 추진 방안은 향후 양국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 될 것이다.

도는 이번 사업과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지정 정책과 연계하여,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풍력·태양광 등 새만금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AI·미래모빌리티·에너지산업 등 신산업 중심의 RE100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기업투자자와 기술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이 본격화되면 새만금은 글로벌 RE100 산업 생태계의 선도 거점으로 도약하고, 민간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산업모델이 될 전망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와 산업통상부 및 관련부처 협력이 한·중 정상 간 성과사업으로 이어진 것은 새만금이 글로벌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정상회담 이후에도 정부부처 및 중국 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지 지정, 투자유치, 제도 정비 등 실행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새만금 RE100 산업단지가 실질적인 한·중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완성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행복한농촌, 함께하는 KRC

한
가
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